

“제2공항 피해 주민 위해 생계비 지원·실태 조사”

위성곤 지사, 타운홀미팅서 “주민 의견 들어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권 행사나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생계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지난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탐라홀에서 열린 ‘우리의 목소리가 제주의 미래가 됩니다’ 타운홀미팅에서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했다(사진).

위 지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이 제2공항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누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자 “제2공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토지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문제를 특별 보증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제2공항이 늦어지면서 토지 거래허가구역에 묶이거나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그동안 제주도가 외면해 왔지만 저는 외면하지 않겠다”며 “민원창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공약한 위 지사는 사회협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꾸려 내년 7월까지 여론 수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지사는 한문용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유족회협의회 회장에게서 미 군정 당시 자행된 4·3 학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 행방불명인 유해 발굴 확대, 유족 배·보상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사과 문제는 잘 검토해 제주도 입장을 정해나가겠다”며 “유해 발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족 배·보상 확대를 위한



〈제주도 제공〉

법 개정도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가 공공사업이 반복되는 찬반 갈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를 거론한 후 갈등관리 전담 조직 필요성을 제안하자 위 지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소통 담당관을 신설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도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 지사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농협·행정 간 역할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 관리 기능과 산지 유통시설을 체계화하는 한편 당근·배추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농산물 유통 전담 조직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지사는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이어지는 로컬기업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4대 과학기술원과 제주대학교가 참여하는 연합 캠퍼스를 2030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위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주별별 또는 지역별 타운홀미팅을 열어 더욱 밀도 있는 토론과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후 “문자나 전화로 정책 의견을 보내주면 검토해 피드백하겠다”며 도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현중 기자 tazan@samdailbo.com

2026 요넥스컵·삼다일보기 제주도 배드민턴대회

▶관련 기사 9면



2026 요넥스컵·삼다일보기 제주도 배드민턴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삼성클럽과 2위 오름클럽, 3위 조이폴클럽 회원들이 12일 오후 제주북합체육관에서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samdailbo.com

삼성클럽, 제주 최고 셔틀콕클럽 등극

오름클럽 2위·조이폴클럽 3위...2부 리그 제이콕클럽 정상

삼성클럽(회장 구상민)이 제주 최고 클럽에 등극했다.

제주 배드민턴 활성화와 동호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견인해 온 2026 요넥스컵·삼다일보기 제주도배드민턴대회가 11, 12일 이틀간 제주북합체육관과 한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대회는 삼다일보(회장 김대형)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회장 이상순)가 주관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요넥스코리아(대표 이사 김철웅)와 제주도개발공사가 협찬했다.

대회 결과 삼성클럽이 1300점을 획득해 1부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삼성클럽은 20대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제주 최고 클럽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사를 맞았다.

준우승은 1200점을 획득한 오름클럽에 돌아갔고, 3위는 조이폴클럽(1100점)이 차지했다.

2부 리그에서는 제이콕클럽이 1위에 올랐다. 제이콕클럽과 열린클럽은 각각 600점을 획득, 총점이 같았지만 우승횟수에서 제이콕클럽이 앞서며 2부 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다. 3위는 대정제이콕클럽에게 돌아갔다.

이들 3개 클럽은 이번 입상에 따라 1부 리그로 승격하는 기쁨을 맛봤다.

참가 인원, 클럽 홍보, 대회장 질서, 단체복 착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상하는 모범클럽상은 열린클럽에 돌아갔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제주도배드민턴협회 소속 72개 클럽에서 785팀·1570명의 선수가 출전해 소속 클럽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이틀간 열전을 벌였다.

홍성배 기자 andhong@samdailbo.com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025년 종합경영평가
대상
(1군)
제민신협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
푸드·팜·페어
2026. 7. 23 목 - 26 일
ICC JEJU 2센터 푸파페제주
(중문관광로 191)
사전등록하기

섬에서 세계로, K-농업의 미래를 열다

제주의 건강한 먹거리, 농업의 가치, 즐거움을 한 자리에서!

FOOD·FARMING·FAIR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상담 및 코칭신청
www.제주6차산업.com

전시·판매

- 청정제주 건강 먹거리 할인·시식
- 도내·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관
- 푸드테크관·청년농부관
- 기관홍보관·특별기획관

체험 프로그램

- 메밀폴장·자연생태 체험
- 곤충 디오라마·화분 만들기
- 제주 전통음식·디저트 만들기
- 키링·도장·소품 만들기
- 반려동물·식물자원 체험
- 다양한 융복합 문화체험

비즈니스 프로그램

- 해외 수출 상담회
- 국내 유통 상담회
- 농촌융복합산업 국제포럼

사전등록 이벤트

사전등록 후 방문 시
매일 선착순
선물 증정!